



저타르 담배의 속임수

“ 보통 담배와 저타르 담배의 위험을 비교하면 10톤 트럭과 2톤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와 비유할 수 있다. 2톤 트럭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것이 10톤 트럭에 부딪히는 것보다 덜 아프거나, 더 안전한 것은 아니다. 저타르 담배의 폐암 발생률은 보통 담배와 같으며, 순한 담배를 피운다고 피해가 줄어들지 않는다 ”

저타르 담배는 덜 위험한가?

흡연자의 2/3는 ‘끊어지지’ 하면서, 자신의 흡연을 못마땅해하면서도 흡연하고 있다.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5%만이 성공할 정도로 담배는 끊기 힘든 중독성을 지녔다. 담배를 끊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순한 담배를 피우면 위험이 적을 것으로 생각하여, ‘마일드’, ‘라이트’ 라는 이름이 붙은 담배를 찾게 된다. 그러나 순한 담배가 암 발생의 위험을 줄이지는 못하며, 독성 물질이 적은 것도 아니다.

타르 함량이 10mg인 보통 담배와 2mg인 순한 담배의 위험을 비교하면 10톤 트럭과 2톤 트럭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예로 들 수 있다. 2톤 트럭에 부딪히면 5톤 트럭에 부딪히는 것보다 덜 아프거나 더 안전하지 않다. 순한 담배의 폐암 발생률은 보통담배와 같으며 순한 담배로 인해 폐암이 생기면 보통 담배로 생긴 폐암과 똑같이 고생하면서 사망하게 된다. 타르나 니코틴 함량을 줄이고 마일드(mild)나 라이트(light)라는 이름을 붙여 안전한 것처럼 보이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순한 담배’는,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담배 판매를 늘리려는 담배회사의 전략이다. 결국 순한 담배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지 못하며 흡연자의 금연 결심에 방해가 되는 여전히 '해로운 담배' 일 뿐이다.

여성을 향한 저타르 담배의 유혹

타르 함량과 폐암 사망 위험률의 관계를 보면 중등도 타르 용량(15-21mg) 필터 담배에 비해 고타르 담배(개비당 22mg 이상)의 위험도는 1.44(95% CI 1.20-1.73), 필터가 없는 담배의 위험비는 1.64(CI 1.26-2.15)로 높았으나 초저타르(개비당 7mg)담배와 저타르(개비당 8-14mg) 담배는 위험도가 1.17(95% CI 0.95-1.45)과 1.02(95% CI, 0.90-1.16)로 폐암 발생에 차이가 없었다. 순한(저타르, 마일드, 라이트) 담배의 폐암 위험은 보통 담배와 같다(Jeffrey, 2004).

타르는 담배연기의 끈적거리는 잔류물(thick, sticky residue)에 포함된 다양한 위험정도를 가진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다. 저타르 담배는 여성과 젊은 성인이 더 많이 피우는데, 설문조사 결과 저타르 담배를 피우는 이들의 28%가 '금연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말하였고, 28%의 사람들은 '덜 해로울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저타르 담배(light cigarettes)에는 보통 담배와 같은 벤조피렌을 포함한 많은 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Evans, 1999). 결국 순한 담배로 바꾸어도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금연을 방해하여 흡연에 의한 사망을 증가시킨다. 스틸만(1997)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저타르, 저니코틴 담배는 흡연자가 NNK 같은 발암물질을 더 깊고, 오래, 강하게 흡입하도록 하기 때문에 폐선암(adenocarcinoma) 발생을 증가시킨다.

환기구멍은 눈속임일 뿐

순한 담배는 만들 때 담배에 공기구멍을 뚫어 연기를 희석시키는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공기구멍을 뚫어놓은 담배는 기계로 검사하면 타르 함량이 낮은 순한 담배로 분류된다. 그러나 흡연자는 기계처럼 흡연하지 않는다. 한번 흡입

“ 마일드(mild)나 라이트(light)라는 이름을 붙여 안전한 것처럼 보이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보이는 ‘순한 담배’는, 금연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 담배 판매를 늘리려는 담배회사의 전략이다 ”



하는 양도 21ml에서 60ml까지 다양하고, 흡입 시간도 0.8에서 3초까지, 간격은 18초에서 1분까지 다양하다 (Shopland, 2000). 베이츠

등(1999)은 순한 담배 흡연자들이 적은 니코틴을 보상하기 위해서 더 깊이, 더 자주 흡입하고 무의식적으로 공기구멍을 막아서 니코틴 농도를 보충하게 된다고 하였다.

해로운 제품의 해독 물질 함량 표시는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지만 담배의 함량표시는 그렇지 못하다. 음식, 약품, 술 제품에 들어 있는 독성 물질 함량표시는 최대 노출 농도나, 최소한 평균적인 농도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담배는 잘못된 방법으로 측정된 함량(순한 담배)을 표시하고 있다. 순한 담배는 흡연자들이 ‘덜 위험하거나’, ‘덜 해로운 것처럼’ 오해하도록 안심시켜 피해를 키우게 된다. 순한 담배 광고는 일종의 부당 광고라고 볼 수 있으며 담배 회사는 보통 담배와 위험이 같은 담배를 덜 위험한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Kozlowski, 2002). †